

혹한기 훈련 후 정진을 위해 돌아보다



리더's 다이어리

송민규 중위(진)
육군50보병사단 해룡여단

길고 길었던 혹한기 훈련이 끝났다. 임관 전 혹한기 훈련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훈련 때 막연한 두려움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충분히 꺾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대원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운 보람된 훈련이었다.

현재 자랑스러운 해룡여단의 기동중대 소대장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중대는 작전지역에서 적을 빠르게 추적하고 격멸하는 기동타격대다. 강한 전투력 배양을 위해 교범을 숙독하고 부소대장과 토의하며 장갑차 운용법과 5분전투대기부대 수행 절차를 몸에 익혔다.

그동안 꿈꾸던 이상적인 소대장은 '뜨거운 가슴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상관과 부하로부터 신뢰받는 리더'였기에 그 모습에 부합하고자 매일같이 교범과 교육자료를 정독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소대원들을 교육했다.

반년간의 꾸준한 노력은 이번 혹한기 훈련에 큰 도움이 됐다. 혹한의 기상에서 적 침투가 이뤄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생각해 움직여야 했다.

우리 부대는 전시 대상륙작전을 전개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단의 최고 전투력을 구현하고자 이번 훈련에선 평소 머리로만 이해했던 이론을 각 시나리오와 국면에 맞춰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나와 소대원 모두 자신의 임무를 체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혹한기 훈련의 꽃인 철야훈련과 20km 전술행군은 다 함께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었다. 소대원들이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훈련 중간중간 손발이 맞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 가령 원점 보존훈련 중 수색 대형을 유지하거나 경시를 일정하게 설치해야 하는 순간 소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서로의 임무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행착오의 부재가 느껴졌다. 훈련 이후 단합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보병 병과의 슬로건은 '나를 따르라'다. 그만큼 보병 병과는 지휘자의 독단이 아닌 소대원들과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중위 진급을 앞두고 훈련을 곱씹어 보며 2가지를 다짐했다. 첫째, 열악한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필승의 신념으로 임무를 완수해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소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멋있는 소대장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말해 보세요



조명탄

정연주
공적말하기연구소 대표

있다고 여긴다. 직무에 관해 설명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다. 그러나 그 직무가 어떤 공적 가치를 갖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치를 잊고 지냈을 수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그렇지 않음에도 입 밖으로 내려 하니 왠지 부끄럽다. 마음속 깊이 있으면 됐지 굳이 드러내나 싶다. '안다고 여기는 것'과 그것을 '나의 언어로 정돈해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가치는 자칫 휘발되기 쉽지만,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볼수록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소리 내 보는 용기를 갖게 되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감이 돼 나를 지탱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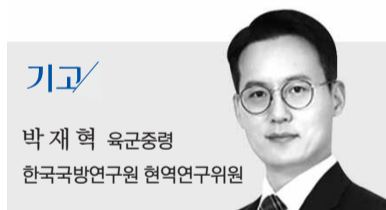
군인에게 '위국헌신(爲國獻身)'은 익숙한 단어다. 정작 본인이 수행하는 임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떻게 기여하는지 동료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다수가 손사래를 치기 마련이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말을 하느냐"며 겸손을

드러내기 급급하다. 하지만 그게 지나쳐 자칫 내가 수행하는 공적 역할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살펴야 한다. 내 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존중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타인의 헌신,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적 말하기를 통한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를 설게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부대원의 사기를 좌우하고, 평시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단단한 결속력을 만든다. 이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적절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직무에 담긴 공적 가치를 마음에 담아 소리 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권한다. 표현이 거창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 속고해 찾은 자신의 언어로 헌신을 구체적으로 자각하며 얘기할 때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와 권위가 실린다.

이제 '오늘거린다'는 핑계 뒤로 숨지 말자. 내 직무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일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이며,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격려다.

'국방 소버린 AI' 핵심 기술 내재화 필요성



기교

박재혁 육군중령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전은 이미 AI 의존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의존 대상이 외부 기업, 외부 모델, 외부 서비스 업데이트 정책에 묶이는 순간 국방 전력은 언제든 중단되고 제한되며 차단될 수 있다. 이번 클라우드 사태가 전 세계 군사 전략가에게 남긴 충격적인 선례다.

우리나라도 대형언어모델을 적용한 미래 전력인 한국군지휘통제체계(KCCS)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KCCS가 외산 AI 위에 구축된다면 3가지 치명적 위협에 노출된다.

첫째, 기업의 정책 변경 한 번에 작전 수행 능력이 흔들린다. 둘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데이터가 외국계 기업에 유출돼 종속된다. 셋째, 공급 차단 등 유사시 군의 지휘통제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의 이란 공습 시작부터 현실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범국

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 소버린 AI'를 단기에 구축할 충분한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KCCS 전력화를 위한 '국방 소버린 AI'를 하향식 핵심 기술로 기획하고, 기술 내재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우리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어떤 외부 기업의 정책 변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통제 가능한 국방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군의 작전 데이터, 전력 구조, 위협 판단 정보는 대한민국 영토에서만 처리·저장돼야 한다. 셋째, 우리 기술로 만든 대형언어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외산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델을 우리가 진화시켜야 한다.

AI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지금 군사 AI 서비스 개발을 외부에 위탁하는 국가는 디지털시대 식민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AI를 활용한 K방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국방 소버린 AI'가 그 마지막 퍼즐이다.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개념 구현을 위한 KCCS에 대한민국의 국방 AI 두뇌를 핵심 기술로 개발해 어떻게 이식할지 고민할 때다.

지난달 26일 전 세계 안보전문가의 시선이 미국 워싱턴DC로 쏠렸다. 미 전 정부(국방부)와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 사이에 전례 없는 정면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윤리 논쟁이 아니다. 현대전이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음을 알리는 동시에 '기술 종속'이 곧 치명적인 '안보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에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망과 엔트로픽의 대형언어모델 '클로드(Claude)'를 연동해 활용했다.

그러나 엔트로픽은 '살상용 자율무기 사용 금지' 등 자사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미 전정부의 '제한 없는 AI 사용'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전격 지정했고, 연방정부 차원의 점진적 사용 중단 지시가 하달됐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주요 방산기업과 국방벤처들이 일제히 자체 시스템에서 '클로드'를 퇴출해야 하는 대혼란을 맞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엔트로픽의 윤리 결정이 옳고 그름이 아니다. '기업의 AI 윤리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작전

국방일보 발행인 이은영 편집인 김가영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